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국민안심병원 지정,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고 15일부터 일반환자와 분리해서 별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원객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병원 출입문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원객들의 발열증상을 체크하고 이름과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의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내원객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장은 “급성질환 등으로 진료나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불안 등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폐렴 등 중증 호흡기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면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격리하여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02 신입간호사 100일 파티 시행

간호부는 입사 100일을 맞은 3월 1일 발령 신입간호사 19명을 위한 100일 파티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월 입사한 19명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 간호사 70여 명이 참석하여 격렬히 간호부장의 격려사로 시작했다. 이어 신입간호사들의 본인 소개, 선배 간호사들의 손 편지와 장미전달식, 김소원 신입간호사의 100일 소감 낭독, 케이크커팅 등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100일동안 수고한 신입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신입간호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첫 발을 내딛은지 벌써 100일이 되었다. 힘든 시기에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주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해준 오늘을 기억하며 환자를 감동시키는 간호사가 되겠다.” 고 밝혔다.



03 ‘미니 팔빙수’ 깜짝이벤트

영양팀은 이른 더위에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해 ‘미니 팔빙수’ 이벤트를 15일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했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빙수기에서 바로 만든 즉석 팔빙수 제공을 기획한 영양팀은 삼행시 짓기, 복불복 뽑기 등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깜짝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팔빙수 이벤트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구석구석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식사 후 빙수를 받은 직원은 시중의 화려한 빙수보다 더 맛있었고 빙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으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교직원을 챙겨주는 영양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5월 친절 간호사



42병동 김보미 간호사

통화 시 항상 밝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칭찬릴레이에 추천합니다.



인공신장실 김희동 간호사

항상 밝은 미소로 환자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기분 좋아져요. 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꼼꼼한 스킬로 신뢰가 가는 간호사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듯해요.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님으로 생각합니다.

허영만의 만화로 쉽게 보는

메르스 감염 예방 생활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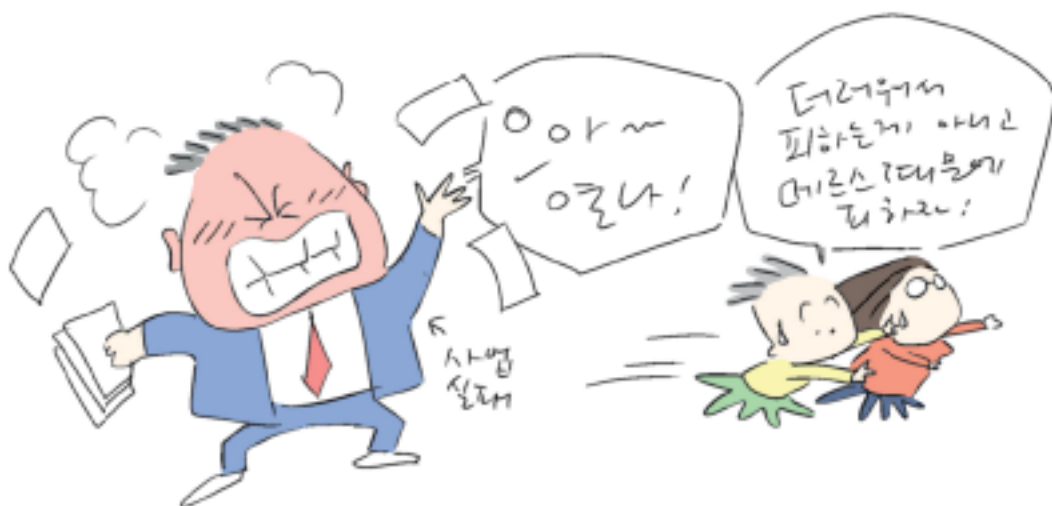
1.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3.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4. 발열, 기침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하기



5. 메르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09** 지역번호 + **120**

메르스, 일상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수]